

설교 자료

인종평등선교주일



공동체에 주신 모든 은사의 중요성

고린도전서 12장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에 대해 가르칩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어느 한 사람도 모든 영적 은사를 다 가진 것이 아니며, 공동체를 통해 모든 은사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교회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자신의 은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성장에 관한 이야기에는 개인의 영적 은사를 파악하는 방법과 그 은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는 일에 필요한 사항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분열된 문화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생각하고, 우리처럼 말하고, 우리처럼 예배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적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볼 때 더 좋은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영적 은사를 잘 알고 사용하면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파악하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때, 피로와 소진 대신 만족감과 목적의식이 생겨납니다.

3. 모든 영적 은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돕는 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8-11).

4. 영적 은사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에 맞는 역할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역할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영적 은사를 잘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사역 가운데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인종평등선교주일에 우리는 교회 담장 너머, 지역사회 너머, 때로는 교회 문 바로 바깥에서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방법을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은사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며, 공동체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제자사역부의 영적 은사 분별 도구를 참조하세요.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PDF로 다운로드하여 직접 인쇄하고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https://www.umcdiscipleship.org/equipping-leaders/spiritual-gifts>

본 자료는 제자사역부의 청지기직 및 관대함 담당 디렉터인 켈 슬론 목사가 작성하였습니다.